

가수 엄정화, 韓 마돈나 아니다

제1의 그녀...24년 만에 만에 연 단독 콘서트서 증명
 “꿈서 그리던 모습, 실현해준 템테이션에 정말 감사”
 ‘초대’·‘배반의 장미’ 등 폐창, 2시간 히트곡 퍼레이드
 김완선·지누션 등 게스트...방시혁·송혜교 등 응원

“오늘을 기다렸어. 이만큼 오기를...”
 무려 24년 만이다. 가수 겸 배우 엄정화가 단독 콘서트를 연 밤이. 엄정화가 9일 오후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펼친 콘서트 ‘초대’는 그간 그녀 무대에 대한 그리움을 불식 시키기 충분했다.
 엄정화는 ‘한국의 마돈나’가 아니었다. 엄정화의 노래와 무대 그리고 그녀 자체로 충분히 서사가 만들어졌다. ‘제1의 엄정화’인 셈이다. 엄정화 팬클럽 ‘템테이션’(temptation)은 요즘 K팝 팬덤이 드는 응원봉이 아닌 예전처럼 분홍 풍선을 들고 ‘여왕의 귀환’을 환영했다. 엄정화의 대표곡 ‘초대’의 상징인 촛불을 형상화한 대형 무대 가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얀 깃털을 단 옷을 입은 엄정화가 꼭 30년 전에 발표한 ‘눈동자’로 이날 무대를 열었다. 엄정화는 1989년 MBC 12기 합창단원, 단역 배우로 연예계 생활을 시작했다. 1993년 영화 ‘바람부는 날에는 압구정에 가야 한다’ 주연을 맡고 주제가 ‘눈동자’를 부르면서 스타덤에 올랐다. 특히 신해철이 작사·작곡한 ‘눈동자’를 다시 수록한 정규 1집 ‘소로우풀 시크릿(Sorrowful Secret)’을 같은 해 내놓으면서 정식 가수로 데뷔했다.
 엄정화는 역시 히트곡이 넘쳐나는 가수였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콘서트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곡을 대다수 관객들이 떼창했다. 흡사 대형 노래방을 방불케 했다.
 엄정화가 ‘술꾼 기대’를 부른 뒤 헤드폰을 쓴 채 등장한 것만으로 공연장엔 큰 환성이 가득했다. 최근 다시 유행 중인 ‘헤드폰 패션’의 대표적 상징적 노래인 ‘몰라’를 부른 순서였기 때문이다. “몰라 알 수가 없어 ♪ ♪”라는 우렁찬 চে창이 공연장을 뒤흔들었다.
 이후 엄정화는 팬들에게 정식으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엄정화입니다. 반가워요.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데...”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정말 꿈만 같아요. 콘서트를 다시 할 수 있게 된 게 24년 만인데 30년 전 데뷔곡으로 의미가 있는 ‘눈동자’로 무대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올해 JTBC 드라마 ‘닥터 차정숙’ 등을 통해 재조명된 엄정화는 이번 콘서트를 결정하고 실제 올리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했다. “콘서트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엔 설렘이었어요. 그러다 ‘안하다고 할 걸’하며 두려워하고 하루에도 냉탕과 온탕을 계속 왔다갔다 했어요. 사실 직전까지 떨렸고요. 근데 지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많이 힘들었지만 콘서트 하기로 결정하길 잘한 거 같아요”라고 설명했다. 꿈에서 그리던 모습을 실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콘서트에 오신 게 좋은 선택이었음을 행복하게 보여

드릴게요.”
 이후 엄정화는 2017년 발매한 앨범 ‘더 클라우드 드림 오브 더 나인(The Cloud Dream of the Nine)’의 두 타이틀곡 ‘와치 미 무브(Watch Me Move)’와 ‘드리머’를 부르며 몽환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과거에 감상선암 투병을 한 엄정화는 “지금도 한쪽 성대는 안 움직여요. 무대에 올라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용기와 도전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특히 팬들과 지인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올해 중반 tvN ‘댄스가수 유랑단’에 함께 출연하며 우정을 나눈 김완선, 이효리, 보아, 화사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1990년대로 ‘시간 여행’하는 순서도 마련했다. ‘숨은 그림 찾기’ ‘삼자대면’ ‘스캇렛’ 등을 엄정화가 부를 때 모두 좌석에서 일어나 춤을 추며 따라붙었다.
 2부 시작이 하이라이트였다. 이번 콘서트 타이틀인 ‘초대’, 엄정화의 대표곡인 ‘배반의 장미’로 이어지는 아슬아슬하고 아찔한 무대가 화룡점정을 찍었다. 엄정화 본인도 “제 아이덴티티를 살려서”라고 표현할 만큼 그녀의 정수가 담긴 무대였다. 이어진 ‘컴 투 미(Come 2 Me)’에서 보여준 의자 춤까지 50대 여성 가수가 어느 젊은 여성 가수보다 관능적인 매력을 발산할 수 있다는 걸 증거했다. 무르익은 표정 연기까지 일품이었다. 군살 없는 몸은 ‘자기 관리’ 끝판왕의 면모를 보여줬다.
 발라드 무대에서 엄정화는 또 눈시울을 붉혔다. 히트곡 중 하나인 ‘하늘만 허락한 사람’을 관객들이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 채 따라 부르자 먹먹해했다. 자신과 절친한 이효리가 출연한 tvN ‘서울 체코인’ OST ‘겨울부터 겨울까지’를 부를 때 팬들이 분홍 풍선 뒤로 스마트폰 플래시를 비춰 분홍빛을 연출하자 “너무 예쁘다”고 감탄하기도 했다.
 화려한 게스트 라인업도 눈길을 끌었다. ‘댄스가수 유랑단’ 식구들인 화사와 김완선을 비롯해 ‘말해줘’를 함께 부른 지누션, 엄정화의 대표곡 ‘페스티벌’을 리메이크한 산다라박 등이 지원사격했다. 특히 엄정화와 동갑내기로 자신의 대표곡 ‘리듬 속의 그 춤을’ ‘베어로는 우릴 보고 웃지’ 무대를 화려하게 꾸민 김완선은 엄정화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댄스 가수 유랑단’을 통해 엄정화와 친해졌다는 김완선은 “정화 씨는 나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아트, 음악의 아름다운 모든 걸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아티스트죠.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깊게 관찰을 잘 하고 거기에 맞는 표현들을 잘 해줘요. 항상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나



이를 멋지게 먹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우리 자기(엄정화)에게 위로를 받은 것들을 마음 속에 새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번 콘서트는 솔로 여성 가수가 드문 시대에 연대의 장이 되기도 했다.
 지누션의 선은 “엄정화라고 쓰고 ‘윈’으로 읽는다”고 엄정화에 대한 존중심을 표했다. 특히 자신들의 대표곡 ‘말해줘’를 피쳐링한 엄정화 노래로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것과 관련 “‘말해줘’는 우리 음반에 실린 곡인데 여기서 명백하게 밝혀요. 정화 씨 노래가 아닌 우리 노래”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날 객석에도 엄정화를 응원하기 위한 스타 지인들이 대거 자리했다. 엄정화는 객석에 앉아 있는 송혜교를 보고 “예쁜 사람이 여기서 봐도 예쁘구나”라며 감사함을 표했다. 관객들이 송혜교를 보기 위해 객석이 웅성거리자 엄정화는 “날 봐요”라면서 장난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배우 박소담 등도 엄정화를 현장 객석에서 응원했다.
 특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눈길을 끌었다. ‘컴 투 미’ 작곡가이기도 한 방시혁은 과거 엄정화와 함께 MBC TV ‘우리 결혼했어요(우결)’에 함께 출연할 뻔했던 인연이 있다. 또 엄정화는 하이브가 지난 6월 펼친 ‘2023 위버스콘 페스티벌(Weverse Con Festival)’의 ‘트리뷰트 스테이지(Tribute Stage)’ 주인공이기도 하다. 방시혁은 엄정화와 이번 콘서트 스테이프를 위해 간식차량을 보내기도 했다.
 객석엔 여성 관객이 주를 이뤘는데 나이대는 다양했다.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언니와 함께 공연장을 찾았다는 20대 김희정 씨는 “‘댄스가수 유랑단’을 보고 배우가 아닌 가수 엄정화 씨에 대해 제대로 알았다. 엄마와 이모가 한 때 정말 좋아했던 가수더라. 오늘 공연장을 찾았는데 우리 시대의 이렇게 좋은 여성 솔로 가수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엔팀(&TEAM), 日 레코드協 ‘골드’ 인

하이브 글로벌 그룹 ‘엔팀(&TEAM)’이 일본 레코드협회로부터 ‘골드’ 인증을 획득했다.
 8일(이하 한국시간) 일본 레코드협회에 따르면, 엔팀이 지난달 14일 발매한 정규 1집 ‘퍼스트 하울링 : 나우(First Howling : NOW)’가 누적 출하량 10만 장 이상으로 골드 디스크 ‘골드’ 인증(2023년 11월 기준)을 받았다.
 일본 레코드협회는 매월 음반 누적 출하량 기준으로 골드(10만 장 이상), 플래티넘(25만 장 이상), 더블 플래티넘(50만 장 이상) 등 골드 디스크 인증을 수여한다.
 앞서 엔팀은 데뷔 앨범 ‘퍼스트 하울링 : 미(First Howling : ME)’와 미니 2집 ‘퍼스트 하울링 : 위(First Howling : WE)’로 각각 ‘골드’(2022년 12월 기준)와 ‘플래티넘’(2023년 6월 기준)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엔팀은 데뷔 앨범부터 최신작까지 세 작품 연속으로 레코드협회 인증을 받았다.
 엔팀은 같은 날 발표된 빌보드 재팬 연말 결산 차트(집계 기간 2022년 11월 28일~2023년 11월 26일)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냈다. 올해 앨범 차트 ‘핫 앨범’ 부문에서 ‘퍼스트 하울링 : 위’(26위), ‘퍼스트 하울링 : 미’(28위), ‘퍼스트



하울링 : 나우(46위) 등 ‘퍼스트 하울링’ 시리즈 앨범이 모두 ‘톱 50’에 랭크됐다. 엔팀은 톱 아티스트 차트인 ‘아티스트 100’에서 54위를 차지했다.

빌뇌브 감독 ‘듀:파트2’로 두 번째 내한



“파트2가 파트1보다 훨씬 생활할 겁니다.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강력한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이른바 ‘둔친자’(‘둔’에 미친 자)라는 말까지 만들어진 영화 ‘듀’(2021)이 두 번째 작품 ‘듀:파트2’로 돌아온다. 연출을 맡은 드니 빌뇌브(Denis Villeneuve·56) 감독은 8일 한국에 왔다. ‘듀:파트2’ 개봉을 두 달 여 남겨둔 시점에서 이른 홍보에 뛰어든 것이다. 이날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내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빌뇌브 감독은 “하루 빨리 여러분에게 영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국에 왔다”며 “완벽한 영화라고 할 수 없지만, 파트2가 파트1보다 만족스럽다. 빨리 팬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했다.
 빌뇌브 감독은 둔친자라는 말에 관해서도 들어왔으며 직접 ‘둔친자’라고 발음하기도 했다. 그는 “그렇게 영화를 사랑해주는 팬이 있다는 건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라고 했다.
 ‘듀’ 시리즈는 미국 프랭크 허버트 작가가 1965년 내놓은 동명 SF소설을 영화화 한 작품으로, 아드리안 브로디가 주인공 폴 아드리안 데스가 핵전쟁이 지도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다. 티모시 샬라메가 전작에 이어 폴을 연기했고 쟈네타 아나스타시오프, 레베카 퍼거슨,

하비에르 바르뎀, 조슈 브롤린, 레아 세두, 오스틴 버틀러 등이 출연했다.
 전작인 ‘듀’는 개봉 이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0개 부문 후보에 올라 시각·미술·음악·음악·촬영·편집 등 6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을 정도로 완성도를 인정 받았다. 전 세계에서 매출액 4억 달러를 기록하며 흥행에도 성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듀:파트2’ 일부 내용을 담은 9분 분량 영상이 3개로 나눠져 공개되기도 했다. 빌뇌브 감독은 새 영화에 관해 “파트1은 사색적인 영화였다. 새로운 행성과 문화를 발견한 소년의 이야기였다면 파트2에선 액션부터 시작된다. 파트2는 더 남성적인 작품이며, 폴과 차니의 사랑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빌뇌브 감독은 파트1과 파트2를 같이 나누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한 편의 연속된 영화로 봐달라는 얘기였다. 그는 “파트1이 공개된 직후 곧바로 파트2 제작에 들어갔다. 연속성을 유지하고 싶어서 작업을 계속 유지하며 만들었다”고 했다.
 빌뇌브 감독은 봉준호·박찬욱 감독을 존경한다고 하며 한국영화를 향한 존중을 내보냈다. 그는 “최근에 ‘헤어질 결심’을 봤다”며 “아주 잘 봤다”고 했다.
 ‘그들인 사랑’(2011)으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빌뇌브 감독은 ‘프리즈너스’(2013)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2015) ‘컨택트’(2017) ‘블레이드 러너 2049’(2017) ‘듀’(2021) 등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연출력을 인정 받았다. ‘컨택트’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감독상 후보에 올랐고, ‘듀’로 작품·각색상 후보에 지명된 적도 있다.

에이티즈, 英 오피셜 앨범차트 2위...BTS·블랙핑크 잇는 순위



대세 그룹 ‘에이티즈(ATEEZ)’가 영국 오피셜 앨범차트에서 2위에 올랐다.
 8일(현지시간) 오피셜 차트에 따르면, 지난 1일 발매된 에이티즈의 정규 2집 ‘더 월드 에피소드 파이널 : 윌(The World Ep Fin : Will)’은 오피셜 앨범 톱100 최신 차트(8~14일)에서 이 같은 순위를 차지했다.
 영국 프로그레시브 팝 록 밴드 ‘제네시스’ 출신 피터 다비디의 ‘i/o’, 캐나다 팝 재즈 보컬 마이클 부블레의 크리스마스 앨범과 막판까지 치열하게 1위 다툼을 벌이다 아깝게 정상을 놓

전작 미니 9집 10위 이어 차체 최고 기록

쳤다.
 에이티즈가 해당 차트에서 2위를 거머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 미니 9집 ‘더 월드 에피소드 2 : 아웃로우(The World Ep.2 : Outlaw)’로 이 차트에서 10위를 차지했다.
 K팝 그룹 중 해당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한 건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미니 6집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Map of the Soul : Persona)’·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세븐(Map of the Soul : 7)’)과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최고 순위 1위)뿐이다. 에이티즈는 이들 그룹 뒤를 이어 K팝 그룹 중 해당 차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달성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도 해당 차트에서 각각 ‘BE’와 ‘디 앨범’으로 2위를 차지한 적이 있다.
 영국 오피셜 차트는 미국 빌보드와 비교해 보수적인 차트로 통한다. 빌보드 메인 앨범차

트 ‘빌보드200’에선 K팝 팀들이 대거 톱10에 진입했지만, 오피셜 차트에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에이티즈 그리고 방탄소년단 정규(‘골든 3위’)·슈가(D-2·7위) 정도다.
 또 영국은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기준 세계 음악 시장 3위이자 유럽 시장의 관문으로 통하지만 영국을 포함한 유럽은 1년에 한번씩 열리는 유럽 최대의 국가대항 노래 경연 대회 ‘유로비전 송 콘서트’에 크게 호응하는 등 지역 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K팝 등 타 지역 음악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높지 않다.
 이런 가운데 에이티즈는 일찌감치 영국에서 꾸준한 성과를 냈다. 작년 월드투어 ‘더 펠로우십 : 비기닝 오브 더 엔드’와 올해 월드투어 ‘더 펠로우십 : 브레이크 더 월’로 영국 런던의 상징적 공연장인 OVO 아레나 웬블리(OVO Arena Wembley)와 디 오투(The O2)에서 각각 공연했다.

베이비몬스터, 1000만 스트리밍 돌파

K팝 걸그룹 데뷔곡 최단 기록

YG엔터테인먼트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가 데뷔 신곡을 써 내려가고 있다.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베이비몬스터의 데뷔곡 ‘배터 업(BATTER UP)’은 5일(현지 시간) 기준 1000만 스트리밍을 돌파했다. 데뷔 10일 만에 이뤄낸 쾌거다. 역대 K팝 걸그룹 데뷔곡 중 최단 기록이다.
 스포티파이 월별 리스너(최근 28일간 청취자 수)는 발매 6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것 또한 K팝 걸그룹 중 가장 빠른 속도다.
 ‘배터 업’은 공개 직후 아이튠즈 누적 21개국 송 차트 1위를 석권하며 월드와이드 차트 최상위권에 안착했다. 중국 최대 음원 사이트 QQ뮤직 ‘음악 지수 차트’, ‘상승 일간 차트’ 등에서도 정상을 차지했다.
 뮤직비디오도 인기몰이 중이다. 공개 하루 만에 2259만 뷰를 넘어서며 K팝 데뷔곡 뮤직비디오 24시간 최다 조회수를 경신했다. 5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이 부문 주간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배



터 업’은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차트서 각각 101위, 49위로 진입했다.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5위, ‘더릭 파인드 글로벌’ 1위 등 총 4개 부문에 차트인했다.